

### 미국 코로나19 대응 「CARES Act」의 고등교육 관련 조항

<자료출처: 2020.10.19. 검색>

- <https://www.ncsl.org/blog/2020/04/10/higher-education-provisions-in-cares-act.aspx>
- 2020년 3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으로 서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보법 (CARES,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은 고등교육 기관이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과 유연성을 제공함

#### ■ 고등교육 구호기금(Higher Education Relief Fund)

- CARES Act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긴급 구호를 위해 142억 5천만 달러를 제공. 기금의 90%는 Pell Grant(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무상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여 대학에 배분. 교육부는 각 기관에 대한 기금 배분 표를 발표함
- 기금의 최소 50%는 코로나19로 학기가 중단된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으로 배분. 긴급 지원에는 음식, 주거, 교재, 기술, 건강관리 및 보육을 포함하여 학생의 출석 비용에 따른 모든 것이 포함. 4월 9일,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한 약 62억 8천만 달러의 긴급 구호를 대학에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다고 발표함. 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기관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기금은 4월 15일부터 사용 가능. 신청 이후 24~72시간 이내에 자금을 받을 수 있음
- 기금을 받으면 교육 기관은 학생에게 긴급 지원을 배포할 책임이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우선순위를 개발. 긴급 지원은 학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미 학생에게 지급된 환급금을 학교에 환불할 수 없음
- 학생의 긴급 지원을 위해 기금의 50% 이상을 할당해야 하지만, 나머지 50%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음. 기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CARES Act는 허용 가능한 사용을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수업 전달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정의함
- 142억 5천만 달러의 고등교육 구호 기금에서 7.5%(약 10억 달러)는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 및 기타 소수 민족 교육 기관을 위해 배분함. 나머지 2.5%(약 3억 5,600만 달러)는 고등교육법의 VII B에 따라 특정 기관을 위한 것임

■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는 차용인을 위한 구제

- CARES Act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연방 정부의 모든 학자금 대출의 지불을 연기하고 이자 지불을 면제함. 이 정책은 개인적인 학자금과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연방정부 대출(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 2010년 중단), 대학들이 보유한 연방 부채(Perkins loans, 2017년 중단) 제외. 지불연기기간 동안에도 매달 연방 대출 면제 프로그램과 학자금 대출 회생은 포함. 또한, 이 법안은 임금 압류, 사회 보장 압류 및 세금 환급 상쇄를 포함하여 채무 불이행 학자금 대출 및 관련 벌금의 모든 비자발적 징수를 중단함. CARES Act의 학자금 대출 조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CSL 학자금 대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학생 및 기관을 위한 면제 및 유연성

- 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학생과 기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 및 Pell Grants를 상환할 필요가 없음. 수강 취소 학생은 해당 학기가 연방 재정 지원을 위한 평생 자격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CARES Act는 학생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연방보조교육기회보조금(FSEOG,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교육 기관은 학교 및 직장 폐쇄로 일할 수 없는 학생에게 연방 근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권한이 있음